

"단색화 같은 가구, 단순하지만 위풍당당" 본문듣기 · 설정

기사입력 2017.08.06 오후 5:48
최종수정 2017.08.06 오후 9:24

 공감

 댓글

카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등에 작품 소장
제자들과 가나아트센터 전시

■아트 퍼니처 선구자 최병훈 홍익대 교수



대형 붓으로 힘차게 한 획을 그은 듯했다. 무게 1.5t에 한 일(一) 자형 현무암 의자가 전시장 공간을 장악하고 있었다. 오랜 풍파를 견딘 암석과 작가의 투혼이 혼연일체돼 가구 이상의 가치가 느껴졌다.

서울 가나아트센터에서 만난 최병훈 홍익대 교수(65)는 "인도네시아산 현무암을 2년간 노려보다가 일순간 영감이 떠올라 먹으로 일필휘지 스케치한 후 돌을 깎기 시작했다"며 "단순하지만 위풍당당한 단색화 같은 작품을 지향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5년 전 국내 수입상에서 겉과 속이 다른 이 돌덩이를 보고 호기심이 발동했다고 한다. 용암이 굳은 속살은 까맣고 겉은 흙돌색이어서 매력적이었다. 그래서 자카르타에서 자동차로 6시간 달려가 자바섬 광산 '스무당'에서 현무암을 채취했다. 그는 "낙후되고 파헤쳐진 산지에서 태초의 잔상을 느꼈다"며 "원시성을 지닌 돌에 21 세기의 시대적 가치를 더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막상 현무암을 경기도 이천시 작업실에 들여놓고않아도 내면의 메시지가 있죠."

그는 한국에 '아트 퍼니처' 개념을 도입한 개척자이기도 하다. 1990년도 홍익대에 관련 과목을 개설한 후 1993년 서울 인사동 선화랑에서 전시했다. "가구에 아트를 결합하면 더 나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죠. 디자인, 회화, 공예 등 장르 구별은 20세기 산업사회 산물에 불과해요. 21세기에는 구태여 구분할 필요 있나요? 다른 가치를 융합하는 게 요즘 시대정신이죠."

그의 작품은 고즈넉한 동양화 같지만 거칠고 고된 작업으로 완성된다. 날카로운 톱날이 돌아가는 그라인더를 들고 돌을 자르고 갈다가 다치기도 했다. "손이 상처투성이죠. 체력도 받춰져야 해서 매일 새벽 수영을 하고 피트니스센터에서 근력을 키웁니다. 아침에 컨디션이 좋으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죠."

작품처럼 단단한 체구를 지닌 그는 제자 13명과 이번 전시 '매터 앤드 매스 아트퍼니처'를 열었다. 최 교수는 "이달 교수직에서 은퇴한다"며 "오랫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 작품을 세상에 소개해주고 싶어 전시를 기획했다. 작품은 계속 바깥 공기에 세워야 기회가 생긴다"고 했다.

전시는 15일까지.

[전지현 기자 / 사진 = 김호영 기자]